



보도자료 (2019.12.18)

문의: 크리스탈지노믹스(주) 홍보담당 정세빈 차장 (031-628-2724)

크리스탈지노믹스, 화일약품 지분 추가확보로 종속회사 편입

- 크리스탈의 재무건전성 강화
- 화일약품, 바이오베타, 개량신약 도입 및 M&A 자금확보로 기업가치 증대 기대

크리스탈지노믹스(이하 '크리스탈')는 관계사인 화일약품주식회사(이하 '화일약품')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시킨다고 18일 밝혔다.

크리스탈은 이번 화일약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약 288만주의 신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현재 약 22%(최대주주)인 지분율을 약 35%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신주 인수 총액은 약 170억원이며, 납입일은 2019년 12월 26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현재 관계회사인 화일약품은 크리스탈의 종속회사로 편입된다.

크리스탈은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달 11일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이하 '크리스탈 바이오')를 설립한바 있으며, 이미 글로벌 협력을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의 첨단 바이오기업 신약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리스탈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파이프라인 추가, M&A를 통한 성장에 제한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 전략적 협력을 통한 관계회사 가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 건강식품원료사업 등을 통해 40여년의 업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원료의약품 생산 및 유통 전문 국내 최고의 제약사로 연구소와 3개의 자체공장(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항생제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스탈은 이러한 화일약품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장 빠르고 우수한 개발성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 투자하는 170억원으로 화일약품의 신규과제 도입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크리스탈의 CFO인 정인철 부사장은 "이번 화일약품 신주취득을 통한 170억원 투자는 크리스탈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부분을 계획한 시기에 맞춰 진행 한 것이다"라며, "화일약품에 파이프라인을 추가하여 개발하게 되면 크리스탈은 화일약품의 이미 갖추어져 있는 연구개발 및 제조 인프라와 노하우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크리스탈이 개발하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과 함께 개발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른 개발이 가능 할 것이며, 화일약품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와 크리스탈의 신약개발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가치 또한 증대되어 양사 모두가 Win-Win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크리스탈 조중명 대표이사는 "크리스탈은 바이오벤처1호 신약인 골관절염치료 신약, 아셀렉스 개발 성공

을 통해 실제 신약개발, 허가, 생산 및 판매까지의 모든 경험을 갖춘 유일한 바이오 벤처사이다. 신약개발은 개발후보 발굴 뿐만 아니라 임상개발, 허가,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크리스탈의 혁신 신약후보 발굴 및 개발기술과 화일약품의 풍부한 인프라와 원료 의약품 대량생산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이미 아셀렉스 의약품 원료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하였으며, 현재 임상개발 중인 분자표적항암제 및 슈퍼박테리아박멸 항생제의 공정개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개발 및 M&A로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여 양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투자로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화일약품은 매년 약 1,100억원의 매출과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연결되게 되면 국내외 투자자들 및 해외 L1 & M&A 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첨부

크리스탈지노믹스 CI 1부



CrystalGenomics

화일약품 CI 1부

